

동기식 사업자 선정 더 이상 연기할 시간이 없다

LGT · 하나로통신 그랜드컨소시엄 구성

그 동안 지루하게 끌여오던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이 급물살을 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선 동기식 IMT-2000 사업자들의 움직임은 분명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LG텔레콤은 하나로통신과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에 본격적으로 합의하고, 정부에 동기식 IMT-2000 출연금을 2,200억원으로 공식 건의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IMT-2000 동기식 사업자의 주파수 출연금 규모를 현행대로 1조 1,500억원으로 하되, 2,200억원은 조기에 납부하고 나머지 9,300억원은 15년간 전년 매출액 1~3%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토록 한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LG텔레콤은 하나로통신과 동기식 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양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오던 컨소시엄을 하나로 통합 확정하고, 동기식 IMT-2000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7월 18일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 추진 위원회는 동기식 IMT-2000 사업권 출연금 규모와 주파수 대역을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동기식 추진위는 이날 동기식 IMT-2000 출연금의 납부금액을 2,200억원으로 하향 삭감해 줄 것을 건의 한 것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SKT · KTF도 동기 서비스 실시

우선 첫째 이유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기식 사업자인 SK텔레

콤과 KTF도 실질적으로 IMT-2000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므로 동기식 IMT-2000 사업자와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F를 동기식 사업자로 보는 원인에 대해 동기식 IMT-2000은 기존 이동전화 서비스의 기술 진화에 따라 발전된 동일한 서비스로서 기존 이동전화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F가 cdma2000 1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이미 동기식 IMT-200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LG텔레콤의 주장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 양 사업자가 현재 고속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HDR(High Data Rate)도 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이미 가입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경쟁사에 비해 이용도가 낮은 만큼 주파수의 이용가치가 다르므로 이용 대가도 낮은 수준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비동기방식은 동기방식에 비해 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다르므로 이용 대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동기식 사업자 선정 이후 동기식 사업자의 선정이 지연되면서 동기식 IMT-2000 주파수의 시장가치가 비동기식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에 동기식 IMT-2000 주파수에 대한 출연금도 경쟁 상황에 따라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동기식 IMT-2000 추진위의 주장이다. 또한 사업자당 PCS주파수가 10Mhz, 동기식 IMT-2000 20Mhz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동기식 IMT-2000 사업자는 PCS사업자와 대비해 과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PCS사업자는 사업권 획득 시 사업자당 1,100억원의 출연금만을 납부하고도 실질적으로 동기식 IMT-2000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적 성장, 기술표준과 관련된 국익 등을 고려하여 동기와 비동기 서비스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 참여기회 확대

다섯째는 자본시장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국내 정보통신산업을 이끌어 갈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동기식 IMT-2000 추진위는 주파수 대역도 지정하여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주파수 할당에 있어 동기식 IMT-2000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동기식 IMT-2000 사업자에게 주파수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IMT-2000용 주파수 대역을 B밴드(1,940~1,960/2,130~2,150MHz)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동기식 IMT-2000 그랜드컨소시엄은 출자하는 출자자에게 1조1,500억원이 아닌 2,200억원의 수준으로만 거둬들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랜드컨소시엄측은 2,200억원 외의 출연금에 대해서는 LG텔레콤이 향후 발생할 매출액에서 납부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기 출연금이 2,200억원 외에 9,300억원을 15년 동안 분할 납부해야 하는 IMT-2000 컨소시엄측이 출자자들로부터 2,200억원 정도에서 징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동기식 컨소시엄 출자자들은 상당규모의 자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수익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워콤, 온세통신 긍정적 반응보여

LG텔레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파워콤, 온세통신 등에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컨소시엄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낸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해당 컨소시엄 참여 주주는 초기 사업참여시 2,200억원에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적정선의 자금만을 더할 것이며, 그러할 경우 적은 금액에서 사업권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텔레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출자자로부터 거둬드리는 2,200억원의 초기 출연금보다 다소 많은 금액으로 검토 중이며, 다소 이 금액이 상향조정될 수 있지만 비동기식 컨소시엄에 비해 절반 또는 이하 수준으로 결정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할 경우 동기식 IMT-2000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초기 2,200억원의 출연금과 주가가격이 더해진 주당 1만원에 못 미치

는 금액만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국통신과 SK텔레콤이 각각 주당 16,000원, 26,000원선에서 결정됐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의 금액에 해당된다.

특히 업체들은 초기 적은 비용으로 출연금을 내고 나머지 출연금은 해당 컨소시엄이 매출 결과에 따라 분납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컨소시엄 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텔레콤은 하나로통신과 최근 여러 협상을 통해 기업 인수 합병이나 지주회사 같은 직접적 통신시장 구조조정이 아닌 상호 지분출자 형식을 통한 전략적 제휴라는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통신시장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LG텔레콤은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하나로통신을 비롯 한 대기업 20여개 사를 포함하여 장비제조, 인터넷, 콘텐츠 등 중소·벤처기업 900여개 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2년 비동기IMT-2000 서비스 불가능

한편, 기존의 비동기식 사업권을 획득한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2002년 IMT-2000시범 서비스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다. 아직 IMT-2000 비동기식 사업자인 SK텔레콤과 한국통신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의 시범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CDMA방식인 2.5G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 보아 동기식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일정이 잡혀야 비동기식 서비스가 실현 될 것"이라고 말하고, "또한 2.5G, 비동기, 동기간의 상호 로밍이 확정되어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관계자는 "서비스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가 보급이 되지 않아 서비스 실현이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업계에서는 CDMA가 활성화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단지 주파수의 효율성 문제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CDMA가 활성화되면 주파수가 부족하여 IMT-2000 주파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IMT-2000을 CDMA의 연속선상으로 보고 CDMA에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동기식 IMT-2000 사업자를 오는 8월 3일 부터 6일 까지 허가 신청을 접수한뒤 심사를 거쳐 8월말 선정기로 했다. 이번 사업자 동기식 선정은 IMT-2000의 빠른 서비스 실현을 위해 일정대로 정확하게 선정해야 할것이다. ☞